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제36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남전도회’ 주제로… 신임회장 나운찬 장로 선출



남전도회전국연합회가 지난 2월 19일 광명시 소재 운양교회에서 제36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갖고 신임회장에 나운찬 장로(운양)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전국교회에서 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했지만 아직은 방역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회부는 코로나 때처럼 간결

하게 진행됐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수석부회장 나운찬 장로의 사회, 직전회장 최병순 장로의 기도, 부총무 김신용 장로의 성경봉독 후 임원진들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총회장 신현과 목사가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 총회장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특별기도의 순서도 가졌다. 천민우 서종모 박정식 장로가 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총회와 지교회회를 위해, 남전도회 부흥을 위해 각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부회장 노재익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환영 및 축하의 시간에는 회장 황제돈 장로의 인사말, 남전도부장 노운식 목사의 환영사, 부총회장 조일규 목사의 격려사와 성결대 총장 김상식 목사,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회장 함선호 장로, 기성 남전련 회장 이규배 장로, 여전련 회장 권계란 권사,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의 격려사와

축하의 순서가 이어졌다.

공모패 수여식도 있었다. 총회장 신현과 목사가 총회에서 남전련 회장에게 공모패를 증정하였으며, 회장 황제돈 장로도 남전도부장 노운식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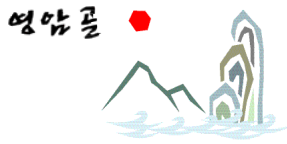
세미나는 운양교회 담임 이상화 목사가 나서서 강의를 진행했다. ‘파송의 노래’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의 자세와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책무에 대해 열띤 강의의 열기가 이어졌다.

이어서 제36회 정기총회가 50여 개 교회 150명의 회원들의 참여로 개최되어 각종 회부처리와 사업계획 등이 보고되었다.

이날 카렌다사업부의 보고에서는 지난해 394개 교회에서 34,642부의 카렌다를 주문해 총 1억 1천2백3십여 만 원 매출을 기록했음을 보고했다. 전년 대비 소폭상승한 것으로 코로나의 여파와 침체된 경제상황임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어 회칙개정, 감사보고, 신임원 교제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나운찬 장로는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사업 활성화와 지면 간 친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March에 march 하자

고대 로마인들은 일 년의 시작이 1월(January)이 아닌 3월(March)이었다. 한 해도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었다.

로마의 겨울은 혹독할 만큼 추웠다. 땅이 얼어붙고, 앞바다 지중해 연안도 얼어붙는다. 또한, 지중해의 겨울 바다는 사나워 항해하기에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농사는 물론 밭갈도 열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로마인들은 겨울엔 땅이 쉬기 때문에 시간도 멈춘다고 여겼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인 첫 달을 Mars에게 바치는 의미로 지금 3월인 March라 했고, 두 번째 달은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에게 바치는 의미로 지금 4월을 뜻하는 April이라 했다.

그러던 것을 로마의 2대 왕 누마(Numa)가 1년을 비록 355일이지만 12달로 계산하여 첫 달을 January(얼음이 앞뒤로 있는 문 지키는 신), 두 번째 달을 February(땅과 마음을 깨끗이라 했다. 그렇게 March는 세 번째 달이 되었다.

그러나 태양주기와 맞지 않아 불편했던 것을 B.C 46년 율리우스 카이사르(Caius Julius Caesar) 황제가 이집트 천문학자의 조언을 받아 1년 12달 365일의 달력을 만들어 사용했고, 서기 1582년에는 교황 그레고리(Gregory XIII)가 수정하여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달력이 되었다.

고대 로마인들은 긴 겨울이 지나 해토(解土)를 풀고 파릇파릇 싹이 나오고, 바닷바람도 부드러워지면 드디어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여기고 Mars(농업과 전쟁의 신) 신전을 찾아 그해의 풍년과 전쟁의 승리를 기도했다. 3월이 되면 땅도 마음도 분주했다. 농부들은 논과 밭으로, 상인들과 군인들은 바닷가로 나가 지중해에 띄운 무역선, 군함을 정비했다. 여기저기서 march(행진, 진격, 앞으로) 노래가 드높았다.

다시 3월이다. 땅 밑에는 얼음이 녹아 흐르고, 들뜬 새싹을 뿔우려고 들쭉거린다. 코로나로 오랜 침체를 딛고 맞는 금년 3월에는 부흥과 성장을 위한 힘찬 기도 행진, 전도 행진이 교회 안팎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

March에 march 하자! 금년 3월에는 진격, 행진하자!

“세월을 아까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6)
淸水 ehc3s@hanmail.net

‘만 나이법’ 오는 6월 실행 앞두고 헌개워서 다루기로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95개 교회 및 개인 참여

총회임원회의가 지난 6일 총회본부에서 개최됐다. 9명의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모금현황과 2023년 정기지방회 조직보고, 재정보고 등의 안건들이 다뤄졌다.

최악의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돕기 위한 총회 차원의 모금운동이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난민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성결인들의 사랑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95개 교회와 개인이 모금운동에 동참해 8천여만 원의 성금이 답지한 것으로 보고됐다.

정기지방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102회기 지방회에 대한 조직보고의 건도 보고되어 새로운 지방회장과 임원들이 선출되어 새로운 한 회기를 준비하게 되었다.

결의안건으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교단 정년 건이 다뤄졌다. 정부의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개정으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이 확립됨에 따라 교단 내 정년의 분제도 이로 인해 다뤄졌다. “나라 법이 바뀌어 ‘만 나이’가 통용되는 만큼 교단 법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반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우리 현장의 경



우 명확하게 ‘만 69세 364일 24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개정의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임원들은 현장개정위원회에 이를 이관하여 처리토록하기로 했다.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제36회 정기총회 결과보고

인사의말씀

할렐루야!

2023년도 임원으로 세우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6회 정기총회를 은혜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해 주신 고문님 이하 모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결가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섬기겠습니다. 교단발전에 기여하는 남전도회전국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임들은 격려해 주시고, 잡하는 일에는 칭찬해 주시므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동안 예정교단 산하 모든 교회의 남전도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총회장님을 비롯한 총회 임원진과 목사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7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제36대 회장 나운찬 장로 외 임원일동 드림

회장



나운찬 장로
운양교회

명예회장



황제돈 장로
신림제일교회

수석부회장



노재익 장로
한사랑교회

총무



김신용 장로
독일교회

부총무



차천용 장로
남부교회

서기



오광록 장로
주님왕에제일교회

부서기



손영식 장로
규일교회

회계



박승훈 장로
전주갈릴리교회

무회계



김영각 장로
운양교회

감사



배태호 장로
시흥중앙교회

감사



윤세곤 장로
비산동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